

古書의 裝釘과 版心에 對하여

白 麟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司書課長)

本稿는 「國會圖書館報」 第二卷 第十一號 (1965年11月號)에 掲載하였던 것이나, 原稿의 未備와 校正이 不完全하여 正誤表만 가지고는 讀者들의 誤解를 免할 수가 없기 때문에 圖協月報의 紙面을 얻어 다시 掲載하는 바이다.

裝釘

大抵 圖書의 外形의인 面이나 製潢의 體裁같은 것은 冊 內容과는 無關한 것으로 여기고 無視하는 傾向이 있지만 이것은 民族的인 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特히 裝潢과 版式의 特徵은 그나라의 國民性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所謂 洋裝製本에 있어서도 各國의 特異性을 보여 주고 있지만 特히 우리나라의 古書에서는 더욱 그러한 面을 如實히 나타내 주고 있다. 卽 書冊이 壯大하고 黃色表紙에 蜂蜜를 먹여 虫害와 腐蝕을 防止하고, 紅糸 한줄로써 다섯 군데를 매고, 表紙는 윤택이 나게 밀어 光澤을 내고, 「菱花版」을 찍어 紋樣을 냈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裝冊法은 中國이나 日本의 그것과는 다른, 韓民族의 獨特한 壯潢法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裝冊法은 民族的인 感情을 보여주는 同時에 그것은 또한 時代的으로 特異한 形式을 나타내고 있으니, 古書의 研究에 있어서 無視할 수 없는 部面이라 하겠다. 東洋에 있어서의 製冊 形式은 初期의 卷子本, 唐代의 帖幀, 宋代의 蝴蝶裝, 元代의 袍背裝, 明代의 線裝等으로 그 形態가 變遷되어 왔다. 그러면 아래에서 各時代의 製冊 形式을 說明하면서 그 特徵을 알아보기로 하자.

卷子本

옛날 中國에 있어서는 書寫의 材料에 竹簡과 木牘이 使用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아는 터이다. 이에 뒤이어 생긴 것이 先秦時代의 縑帛書인데, 縑帛이란 오늘날의 絹布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縑帛를 使用하게 되면서 부터 裝本法이 始作되었다고 보겠다.

卽 書卷의 左端에 捧을 달아 書寫한 縑帛을 두루 말아서 한 卷으로 하였는데 이 捧이 마치 車軸과 흡사하

다고 하여 이를 軸裝이라 한다. 이와같은 形態의 書籍을 卷子本이라고 名稱하는데 오늘날 書冊의 數를, 몇 卷 몇 卷, 하고 부르게 된 것은 이 卷子本에서 由來된 것이라고 한다.

卷子本의 起源에 對하여는 晉漢時代의 原裝本의 遺物이 傳存된 것이 없으므로 그 時期가 明確치 않으나 적어도 秦漢時代에 널리 使用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卷子本의 材料가 縑帛이었으므로 그때 그때 必要에 따라 그 長短을 自由로 할 수 있었으나 종이를 使用하게 되면서 부터는 긴 文章을 쓰는 데는 여러장을 이어서 써야 했기 때문에 종이를 붙이는 데는 풀을 使用했을 것이며, 붙여서 이은 곳에는 대개 印章을 찍든가, 또는 署名을 하여 古文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같이 前後의 連結과 眞本임을 表示하기 爲하여 印章을 찍은 것을 印縫이라고하며, 署名한 것을 押縫 또는 款縫이라고 한다.

軸의 材料는 一定치 않으나 옛날 縑帛書에는 珊瑚軸, 紙書에는 金軸, 그다음 瑤瑠, 檀檀(檀香本)을 書軸으로 使用하였다. 그리고 隋煬帝 時에는 宮中の 藏書를 그 優劣에 따라 三品으로 區分하고 上品은 紅瑤瑠軸, 中品은 紺瑤瑠軸, 下品은 漆軸으로 裝하여 區別 藏置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隋書經籍志參照) 그 後 唐代에는 宮중에 있던 集賢院의 藏書를 四部에 依하여 軸의 色과 質을 달리하였던 것이다. 卽 經은 螺鈿(광채가 나는 자개조각을 여러 軸으로 박아 붙이며 장식한 것)의 白牙, 史는 靑牙, 子是 紫檀, 集은 綠牙로써 軸裝하여 四庫에 各各 分藏하였다는 記錄이 보인다. (舊唐書 經籍志卷下 參照)

이와 같은 軸裝製本法은 後代의 四部裝縑法의 起源이라 하겠다.

帖裝(折帖本)

帖裝은 이를 帖裝本, 帖本, 摺本이라고도 말한다. 法帖을 만들 때에는 이와같은 裝幀法을 使用했으며 이를 一般的으로 折本이라고 한다.

形式은 卷子本을 重疊하여 앞 뒤에 表紙를 붙인 것

이다. 그러므로 前後表紙가 떨어져 있다. 唐代에만 流行하였다고 하나, 後代에 내려와서도 法帖, 拓本 같은 것에 이와같은 裝本法를 많이 使用하고 있다.

旋風葉

이것은 帖裝이 發達한 것으로 亦是 唐代에 流行한 方法이며, 그 形式을 보면 帖裝本은 그 表紙가 前後로 나누어져 있는데 反하여 이것은 表紙가 한 張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한 張의 表紙로써 그 背面까지 덮어 싸고 앞 部分과 맨 뒷 部分만 붙여 있는 것이다. 外見上으로는 宋代의 蝴蝶裝이나 元, 明代의 包背裝과 흡사하나 그 形狀은 縱이 훨씬 길 뿐이다. 그리고 表紙만 잡고 흔들면 本文의 紙葉은 全部 쏟아져 나온다. 그리하여 이를 旋風葉이라고 하게된 것이며 그 特徵은 表紙의 前後만이 붙여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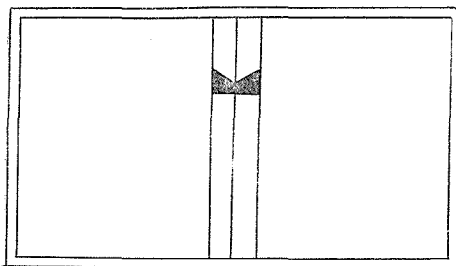
蝴蝶裝

이 蝴蝶裝은 宋代의 代表的인 裝幀法인데, 그 裝本 形式은 本文의 中表에 돌로 접은것을 重疊하여 그 外部에 물을 칠하고 本文用紙의 두배 가량 크기의 厚紙를 二折하여 本文의 中心을 붙인 것이다.

本文을 二折할 때는 寫面이나 印面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는다. 그리고 裝本된 것을 보면 두장 두장씩 떨어져 있는데 그 形狀이 마치 나비의 날개와 비슷하다하여 이와같은 名稱을 얻게된 것이다. 特徵은

1. 版心の 뒷 部分을 붙였다.
2. 中心이 안쪽에 있다.
3. 한 페이지를 본 다음에 두 페이지를 넘겨야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다.

即 本文의 한 페이지의 다음에 두 페이지는 空白面이 된다.



粘葉

이것은 蝴蝶裝이 變化 發達된 것으로서 裹背本이라고도 말한다. 表紙는 厚紙 또는 絹布를 使用하였다. 長澤規短也氏는 이를 旋風葉과 同一한 裝本이라고 하였지만 이 裝本 形式은 名稱 그대로 蝴蝶裝이 펼쳐지는 곳, 即 空 페이지를 아주 붙여버렸으며 版의 中心은

그대로 內側에 있다는 것이 그 特徵이라 하겠다.

彫版印刷法이 發明된 以後의 書籍은 한장 한장에 印刷된 여러 책장을 합쳐서 한 冊으로 製本하였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製本樣式을 冊葉制度 또는 冊子形式이라고 하며, 이 冊子形式의 代表的인 것이 包背裝과 線裝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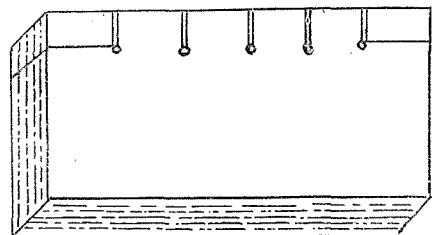
包背裝

이것은 粘葉이 發達된 形式의 裝幀法이다. 即 外形이나 表紙를 밖으로 접어서 寫面이나 印刷面을 外面으로 나오게 하고 冊張의 中心은 冊의 앞도면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접은것을 重疊한 다음 뒤의 두 곳을 노끈 심지로 綴하여 그 위에 蝴蝶裝과 같이 表紙를 접어 싸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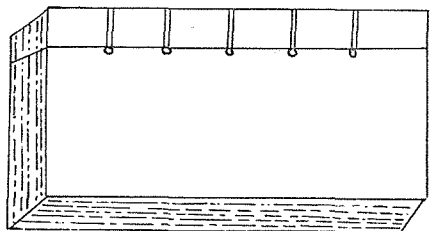
이와같은 裝本法은 大體로 보아 中國 元나라 때에 流行한 形式으로서 그때까지 線裝法은 發明되지 않았다. 그 特徵은

1. 版心이 外部로 나오게 된다.
2. 손이 많이 가게 되므로 黑口와 魚尾가 나타난다.
3. 실은 使用하지 않는다.
4. 비단이나 靑色종이 表紙를 써온다.
5. 이 裝法은 明의 永樂年間까지 流行되었다.

우리나라 古書의 粧潢은 菱花紋이 적히고 밑을 먹인 두터운 黃色表紙에 끈으로 다섯 곳을 맨 것이 또한 特徵이라 하겠다. 그런데 線裝法의 變遷을 보건대, 적어도 鮮初에는 굵은 노끈으로써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다섯 곳만을 묶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粧潢의 標本은 흔하지는 않으나 筆者가 二種收集하고 있다.



그後 어느때 부터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가로와 세로에 다섯 곳을 매게 되었다.



古書의 製冊樣式을 理解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彫版本의 版面의 各部分을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古書를 다루는 동안에 여러 版本을 比較檢討하면서 얻은 經驗을 土臺로 하여 그 知識을 얻게 되는 것이다.

版心の 說明에 앞서 版形에 對하여 말한다면, 한 冊板이 占하는 面積을 版面 또는 匡郭이라고 한다. 大體로 版面에는 邊欄과 界行, 그리고 版心이 있다. 邊欄은 그것이 太細 二線 卽 四周雙邊인 것, 或은 單邊인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左右만이 雙邊이고, 上下는 單邊인 것, 또는 上下는 雙邊이고 左右는 單邊인 것 등 여러 種類가 있다.

어떤 書誌學者는 中國의 版本을 들어 말하기를 宋版은 四周單邊이고, 元版은 四周雙邊이라고 하였으나 現存하는 宋本의 板式을 調査하여 본즉 單邊인 것 보다 오히려 左右雙邊인 것이 더 많다. 그런데 元版本은 雙邊인 것이 確實히 많다. 明初期의 版本에 있어서는 左右雙邊인 것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같은 匡郭의 形式은 地域의 또는 時代的인 特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定한 基準을 얻기는 어렵다.

版心

版心은 中縫(冊紙의 中間이 접히는 곳) 이라고도 한다. 이 版心の 由來를 찾아보면, 그것을 卷子本의 軸에서 起因한 것이라고 보는 學者도 있는데 筆者의 생각으로는 彫版 印刷法이 始作되면서 부터 나타나는 特徵이라고 보겠다. 書冊은 初期의 卷子本, 唐代의 帖幀 宋代의 蝴蝶裝, 元代의 袍背裝, 明代의 線裝 등으로 그 製本形態가 變遷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版心の 形式도 時代的인 特徵을 보여주고 있으니, 例컨대 卷子本은 말아 두기爲하여 棒, 軸이 必要했고 帖裝이나 蝴蝶裝은 版의 中心이 안쪽에 붙어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장식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袍包裝부터는 版의 中心의 外側, 卽 前面으로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木版印刷에 있어서는 책 紙가 얇어야 하며 淋汁으로 印刷하기 때문에 用紙의 一面밖에 찍을 수 없다. 그러므로 印刷의 工程에 가장 便利할 수 있도록 版本의 幅을 넓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印刷한 紙面의 正半을 접은 접장을 한張으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접히는 곳은 文字가 없는 餘白 이어야 했기 때문에 印刷된 行間으로서 는 너무 좁았다. 그리고 접는 데도 不便했을 것이니 접는 곳은 어느 程度의 空白를 두어야 했음은 自明한 理致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곧 版心이라 하겠다.

初期에는 版心이 아주 좁았던 것이다. 宋版이나 高

麗版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字行의 넓이 정도밖에 아니 된다. 그러던 것이 점차 넓어 지면서 索引과 같은 役割을 하는데 利用된 것이다. 卽 거기에는 簡單한 署名과, 卷次, 張數가 記載되었으며, 그리고 極히 소박하나마 장식을 加하게 되었으니 그 結果로 나타난 것이 곧 黑口, 魚尾인 것이다.

版心은 大體로 三欄으로 等分되는데 各欄은 魚尾로써 구분된다.

上欄은 처음에는 丁數를 記載하였는데, 뒤에 와서는 書名을 記載한 때도 있고, 또는 더 내려 와서는 刊刻 出版者의 姓名이 記載되었다. 中欄에는 一般의 略 書名과 卷次 枚數가 記載되었다. 下欄은 以前부터 刻手의 姓名이 記載되었으나 後에는 出版者의 名稱 或은 叢書名이 記載되었다.

大抵 宋版本에 있어서는, 南宋 以後의 版心은 書口로 되어서 여기에 黑口, 大黑口(黑地인 것), 小黑口(黑線인 것), 白口(空白인 것) 등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北宋의 刊本은 흔히 雙邊 白口로서 文字가 크고 行間이 넓은 것이 그 特色이라 하겠고, 南宋本에 있어서는 점차 黑口가 流行되어 그것은 小黑口에서 大黑口로 變異한다. 그리고 대개가 單邊이고 文字는 작고 行間은 좁아져서 冊이 北宋本보다 작다는 것이다. 南宋에는 小黑口가 많다는 것은 小黑口에서 大黑口로 넘어가는 時期의 것이라고 보겠다. 그런데 이 黑口는 明의 中葉頃까지 流行되고 있으며, 그後는 점차 白口의 것이 나타나기 始作하여 明 嘉靖年間에 이르러서는 大部分이 白口이다. 그것은 嘉靖頃에 宋版의 模倣이 行하여 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中國版本의 版心の 變化는 그렇거니와 우리나라의 版本도 高麗末期의 것이나 李朝初期의 것은 그 版心이 中國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李朝中葉에는 花紋魚尾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中國版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特色인 것이다.

다음은 魚尾에 對한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魚尾

版心に 물고기의 꼬리 모양의 紋樣이 있는데 이를 魚尾라고 말한다. 이와같은 版心の 魚尾는 中國에서는 南宋,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高麗末朝 부터 나타나기 始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刊本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變化하여 왔는가 그 過程을 알아 보기로 하자. 앞서 우리나라의 刊本에서 魚尾가 나타나기 始作하는 것은 高麗末期부터라고 하였는데 現存하는 高麗時代의 刊本이 그 대다수가 末期의 것들이니 最初의 魚尾가 있던 時代는 確實히 알수가 없다. 그러나 推測컨대 高麗高宗

以後 元과의 往來가 많았던 때에는 中國刊本の 影響을 받아 版心에 魚尾를 붙이기 始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李仁榮氏는 「鮮初의 活字版에 對하여」에서 甲寅字版의 刊年判斷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基準를 例示하여 주고있다.

世宗朝 甲寅字



文宗 成宗前後



中宗 宣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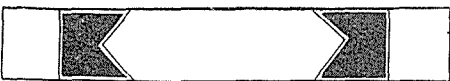
李仁榮氏가 提示한 甲寅字版本을 版心の 魚尾로써 그 刊年을 判斷하는 方法은 비단 甲寅字本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種類의 活字本이나 木版本에 있어서도 어느程度 準用할 수 있는 基準임으로 많은 參考가 된다고 보겠다.

가람 李秉岐先生은 “魚尾의 變化에 따라서도 刊行年代의 決定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歷代 王朝實錄印本の 版心の 魚尾 變遷을 다음과 같이 種別하여 例示하여 주었다.

(1) 太祖——世宗까지는



(2) 文宗——燕山君까지는



(3) 中宗——景宗까지는



(4) 景宗修正實錄부터는



以上 가람先生께서 指摘한 魚尾의 例는 李氏朝鮮王朝實錄에서 取한 것이지만, 一般의으로 古書의 時代別 刊行年度에 따른 魚尾形態의 變遷을 例示하여 주는 것으로서 李朝 全般에 걸쳐서 代表되는 魚尾이다. 그러므로 魚尾의 時代的 變遷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資料를 提供하여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美國「캐리포니아」圖書館에서 淺見文庫本을 알아보는 「房兆楹」氏는 그의 論文「鑄字瑣談」에서 英祖 以前의 甲寅字體印本과 壬辰丁酉字 以後의 即 正祖時의 甲寅字體印本の 判別法으로서 다음과 같은 原則을 提示하여 주었다.

正祖潛邸時鑄壬辰字, 即位後復鑄丁酉字, 實則皆以 甲寅字爲本, 與自顯宗至英祖百年間以甲寅字所印之書, 字體上無大差別, 若無序跋刊記, 不易分辨其印書時代, 惟有一法可以判別, 蓋英祖及以前所印甲寅字書板心皆有上下雙魚尾, 壬辰丁酉以後正祖所印甲寅字書皆止有上魚尾無下魚尾, 與鐵字所印書同, 餘自四年前發見此法以之歷試於所見顯宗至正祖時甲寅字所印諸書, 屢驗不爽, 尙無例外.

以上 方氏의 所見은 一理가 있는 말이나 그렇다고 해서 絕對的인 基準은 못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筆者가 調査한 壬辰字 및 丁酉字本中에 「皇明通紀輯要(英祖 48年) 御定杜陸千選(正祖 23年) 癸巳合文廣大增廣司馬榜目(英祖 49年)」等書는 모두 上下花紋魚尾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體로 보아 壬辰, 丁酉字本은 上下花紋魚尾인 것이 大多數란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면 結論에 대신해서 以上 세분이 提示한 基準을 參考로 版心魚尾의 時代別 特色과 그 移變에 對하여 筆者의 所見을 添加數術해 보겠다.

<上下 下向黑魚尾>



위의 것은 世宗年間에 使用된 下向 魚尾의 形態로서 約 10年間 流行 되었으며, 初期甲寅字本은 異例없이 이 魚尾이다.

<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



위의 形式이 나타나기 始作한 것은 高麗末期부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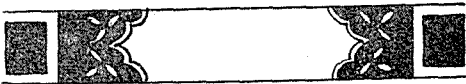
며 成宗時까지 約百年間 使用되었다. 特히 世祖年間의 版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서, 世祖朝의 刊經都監版은 例外없이 이와같은 大黑口와 內向 黑魚尾를 가지고 있다.

<上下內向黑魚尾>



위와같은 上下內向 魚尾는 高麗版本에서도 간혹 눈에 띄나 世宗末年頃부터 世祖時에 많이 使用된 形式이다.

<大黑口上下細花紋魚尾>



위의 것은 大黑口上下內向花紋魚尾인데, 이와같은 形式은 中宗때 부터 宣祖때 卽 萬曆이전에 流行되었던 形式으로서, 明宗때부터 점차 上下花紋魚尾로 變하여 宣祖25年 壬辰 以後 大黑口는 完全히 그 자취를 감추고 上下細花紋魚尾만이 남게 된다.

<上下細花紋魚尾>



위의 것은 壬辰倭亂을 前後하여 使用된 上下細花紋魚尾인데, 이것은 한 魚尾에 花瓣이 여섯개가 있다.

大體로 明宗以後부터 이와같은 形式의 魚尾가 나타나기 始作하여 光海朝까지 流行된다. 그러나 같은 細花紋魚尾에 있어서도 壬辰以後 訓練都監의 刊本에 있어서는 版이 粗雜할 뿐만 아니라 魚尾도 그 模樣이 變化되면서 棼박하여 진다.

大體로 壬辰以後의 訓練都監字刊本을 보면 아래에 例示한 것과 같이 2種의 形式이 있는데, 처음의 것은 그 花瓣이 여섯인데 대하여, 뒤의 것은 그것이 다섯이다.

<上下細花紋魚尾>



小學諸家集 註의 例



文選의 例

그러나 孝宗때 부터는 細花紋魚尾는 그 자취를 감추기 始作하여 肅宗時에 이르러서는 完全히 花瓣이 넷인 上下花紋魚尾로 變化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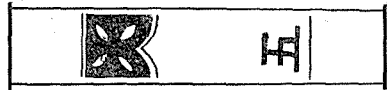
<上下花紋魚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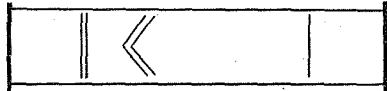
(聖學輯要)

위의 것과 같은 形式의 上下雙魚尾는 英祖末期에 이르러 점차 없어지고 그대신 上單魚尾만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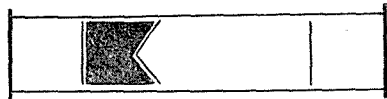
<上花紋魚尾>



<上白魚尾>



<上黑魚尾>



그러나 純祖때부터는 上黑魚尾인 單魚尾가 流行되었다가, 舊韓末 高宗에 이르러서는 上白魚尾로 移變한다.



위의 것은 上細花紋魚尾이다. 哲宗時에 一時 이와같은 魚尾가 使用되었는데, 그 例는 흔하지 않아 한두 例를 든다면 「文昌帝君續三經」(全史字本)과 「文章正宗」(丁酉字混用) 그것이다. 卽 版心 上欄에 書名이 있고 이를 魚尾로 區劃하여 中欄에 卷次, 下欄에 張次가 적혀있다.

